

서평

부르심에 책임 『제일소명』

들어가는 말 - 딜레마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군에서 밤늦게 보초근무를 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홀로 밤을 새우며 새벽을 기다리는 초병처럼, 무언가를 바라며 일상을 영위한다. 주말이 되어 아담의 때로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노동의 저주'로부터 잠시나마 놓여 휴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으로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사명으로 바쁘게 보내면서 더 피곤한 '주일'이 되기 십상이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말씀에만 의지한 채 다시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신앙은 주일과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어떤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 더 바빠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더 배워야 하고 경쟁도 치열해진다. 학문과 노동의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의 가치가 극히 작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한 부품으로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에게 주일은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잔치이지만, 나머지 날들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세속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마크 래버튼의 『제일소명』은 소명의 진정한 재정립과 실천에 이 난제의 열쇠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명의 정체성, 소명의 구체화, 소명의 실체화

저자 래버튼은 목회자요, 기독교 지성으로 교회와 학교를 두루 섬기고 있다. 그는 특별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하며 존 스토틀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얼마 전 국내



우상현 우상현 목사는 현재 삼일교회에서 교육디렉터로 섬기며, 삼일교회 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의 시작과 함께 1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사역을 감당했다. 충남대학교 수학과(B.S.),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London Theological Seminary(설교자 과정),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에서 수학하였다.



한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구원받은 믿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확증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오명과 각종 폐단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복음주의는 행동보다는 말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비판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제일소명」에서 목회와 학문 현장에서 평생을 고민하던 위의 고백들에 관하여 소위 ‘부르심’ 혹은 ‘소명’의 인식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먼저 책의 전반부를 ‘무엇이 소명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할애했다. 이 질문에는 서구교회와 한국교회가 매우 오랫동안 소명을 상당히 협소한 의미로만 이해해 왔다는 반성이 담겨 있다. 오늘날 소명에 대해 새삼 이야기하기 어려운 까닭은 많은 이들이 소명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대부분 암묵적으로 소명의 의미를 교회 내 특별한 목회자 그룹과 종교적 사업에 국한시키는데 익숙하다. 다시 말해 소명이 신학교 입학, 선교사 파송, 교회 봉사 등 종교적 이해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의 “번성하라는 부르심”을 외면한 교회는 세상과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며,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니, 이미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교회는 수와 세력이 커지면서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을 향한 발언권을 급속히 잃고 있는 느

낌이다. 그래서 래버튼은 소명을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밝힌다(p.26). 성도의 제일소명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관습적으로 주일과 나머지 6일을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성과 속으로 구분하여 왔다. 6일은 노동이라는 저주 가운데 허덕이며 인내해야 하는 날들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대목인 문화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일상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본래 의도의 일부였지 몇몇의 오해처럼 저주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노동은 인간에게 더 이상 즐거

움일 수 만은 없게 되었다. 복은 짐이 되었고, 기쁨은 수고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와 사역으로 축복으로서의 노동이 저주로서의 노동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제공되었다. 일상이 소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성스러운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신자가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벧전 2:9).

저자는 소명의 정체성을 밝힌 후, 그것의 성격을 주도면밀하게 파헤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나아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부름받았는가? 래버튼은 소명이 시작되는 곳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한다(p.64).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인식함과 동시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순결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아픔과 불의의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소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의 삶을 바벨론의 망명생활에 비유한다. 이 땅에서 성도의 소명은 마치 타고 꽃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왜곡과 딜레마로 점철된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되어 다시 올 그 나라 사이의 긴장점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소명은 날마다 현실적인 갈등관계로 다가온다. 문제는 소명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삶 속 긴장관계가 대부분 유동적인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아쉽게도 이 역학관계는 대체로 비기독교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소명의 중심에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즉 세계관의 싸움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게 된다.

저자는 이 과제를 충실하게 파헤친 모델로 “망명지의 리더”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었지만, 가장 연약한 자들과 친밀히 지내셨다. 그리고 끝내 “상실감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 독특한 방법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를 이끄셨다.”(p.109) 예

수님의 삶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의 목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와 권세를 소유했음에도 마치 낮은 이방민족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성도의 그런 약함에서 강함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소명은 파도타기와 같다.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거센 물결을 직시하고 몸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서핑 보드에서 몸을 일으켜 서서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 물결의 성난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단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경험은 없을 것이다.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일 속에서 소명이 구체화된다.

『제일소명』의 마지막 부분은 소명의 실천을 언급한다. 소명의 실체화다. 저자는 소명을 이루는데 있어 사랑, 지혜, 고난의 여정이 필수불가결함을 제시한다. 세속적 사고방식은 ‘인생은 만족스러워야 한다’, ‘성취도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신화를 양산해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되지만, 성경이 말하려는 소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경적 의미의 소명이란 섬김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느 때와 장소에서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소명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부르심에는 종종 고통이 수반된다. 저자는 자신이 목회현장에서 경험한 많은 사례를 통해 이를 증명한다. 마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킨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

소명은 삶의 방향이나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변화다.”(p.157) 소명은 삶 자체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실체의 문제이다.

그래서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부르심의 역할을 살핀다(pp.158~181). 소명이 삶에서 별개로 정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이 삶의 체계로서 얼마나 체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이 삶의 체계로서 자리잡지 않으면 소명을 따르는 삶에서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레이튼도 소명을 “영적 성장의 과정 그 자체”로 이해하기도 한다(p.181). 그러므로 삶으로 자리잡지 못한 소명을 따르는 것은 한 마디로 고역이 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적 논의를 기대했던 아쉬움

저자는 소명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폭넓은 경험과 학자적 여유로움으로 노련하게 풀어냈다. 다만 필자는 「제일소명」을 정독하며 내심 저자가 언급하기를 바랐으나 끝내 등장하지 않은 한 가지 주제에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의도를 밝혔다면 보다 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프란시스 웨퍼는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성령이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변치않는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본질적인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소명은 창조와 절대로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우리의 소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소명에 따른 직업은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부여하여 새로운 가공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운행시키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분명 우리의 지상 최대 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소명의 시작과 실천과 목적이 있다.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면, 내 앞에 펼쳐진 삶에 대

한 그분의 법을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이 원화되고 파편화된 삶이 변하여 온전한 소명의 삶으로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소명은 어떤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소명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분의 창조 의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는 일이다.

나가는 말

『제일소명』은 삶에 분주하게 쫓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량제가 되어 줄 것이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우리에게 ‘나머지 6일’은 어떤 의미일까? 더 정확히 질문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나머지 6일’에도 통제권을 갖는 것일까? 본서는 그렇다고, 그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다. 소명은 신자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삶은 소명이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알 수 없는 평안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소명이다. 그것은 일주일의 하루가 아닌 모든 삶이 하늘로부터 수여된 은혜의 현장임을 인식할 때부터 시작된다. 소명이 체화되어 모든 삶 속에서 변함없는 인격을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만이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질 것이다. ☺